

# 청년층의 주거와 가구배경이 청년니트 이행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Housing and Household Background of Young People on the Implementation of Youth NEET

황광훈\*

Kwanghoon Hwang\*

### Abstract

Using youth panel data, this study attempted to diagnose the effect of residential characteristics (housing type and housing type) and various household background variables on the implementation of youth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and to suggest appropriate policy dire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young individuals residing in unfavorable living conditions such as those who rent on a monthly basis or live in multi-household, villa, or officetel settings, had a higher likelihood of transitioning to NEET. Those who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parents were more likely to transition to NEET. Therefore, comprehensive youth NEET support policies such as customized housing and job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NEET should be established. In particular, even though they have reached adulthood, it is shown that the likelihood of becoming NEET is very high for youth who live together with their parents without being economically independent or who receive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ir parents. In order to mitigate and prevent these young people from NEET transition, transitioning from school to the labor market should be facilitated with policy support.

**Keywords:** Housing, Household Background, Youth NEET, Pooled Logit Analysis

## 1. 서론

청년 니트(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란 학업이나 일을 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을 의미하는데, OECD와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청년 니트의 증가 현상에 주목하여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제안하고 있다(이미숙 외, 2022). 니트(NEET) 개념은 영국에서 1999년에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일본으로 2004년 도입되어 청년고용정책에 활용하

였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청년층 니트에 대한 규모와 현황이 추정되어 활발한 연구는 되지 못했으나, 최근들어 청년층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청년 니트에 대한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부적응 또는 게으른 청년으로 인식하며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니트 청년 정책이나 사업 진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이미숙 외, 2022). 니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고용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hunzzang96@keis.or.kr)

정책은 실업률 개선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청년 고용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년 니트 현상에 특성에 주목해야 하며, 청년의 니트화를 예방하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효과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니트 집단의 특성과 니트화의 요인을 규명하고, 그로부터 초래된 니트의 본질적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속되는 청년 실업 문제와 청년층 우울증,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니트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청년니트에 대한 다양한 환경요인들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니트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을 관찰하는 수준의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학력, 가족 배경 등 니트 집단 내부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청년층이 니트로 이행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며, 니트 집단 내에서도 이질적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여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청년층 중 상당수가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가난한 청년들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황광훈, 2023). 취업한 이후 주택 구입과 결혼 등과 같이 이전의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일반적인 삶의 과정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청년세대라 칭할 수 있다. 삶의 활기로 가득 차 있을 것만 같은 시기인 청년을 대표하는 단어가 '포기'가 되었으며, 연애·결혼·출산 포기를 의미하는 삼포는 어느새 오포(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주택구입)로 포기의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변수정 외, 2018). 이 중에서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왔던 결혼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혼이라는 삶의 과정이 개인의 선택이 되어 버렸고, 이와 더불어 결혼

과 출산 사이의 관계가 매우 연결성이 강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결혼 지연과 포기가 저출산 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광훈, 2023). 즉, 청년 세대가 당면한 문제는 그 자체로의 문제뿐 아니라 혼인율 감소, 초혼 연령 증가, 출산율 감소까지 이어져 청년들의 포기 현상은 사회의 많은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변수정 외,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주거특성(주거형태 및 주택종류)과 부모의 직업 및 학력, 경제적 상태, 부모로부터의 독립여부 등 다양한 가구배경 변인들까지 포함시켜 과연 청년 니트 상태로 들어서게 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청년니트의 원인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치유하고, 개선 및 해결해 나가야 할지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적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등을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실증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제IV장에서는 주거특성과 가구배경을 중심으로 청년니트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후, 연구 결과의 함의와 제언 등을 맺음말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 2. 니트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 2.1 니트의 정의

“일을 할 것인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즉, 어떠한 개인이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이라고 한다(황광훈, 2021). 다시말해 유보임금은 어떤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 공급을 유인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최

소한의 임금을 뜻하며, 의중임금이라고도 불리운다. 만약 어떤 개인이 시장임금(market wage)이 유보임금(reservation wage)보다 낮을 경우, 일을 하지 않을 것인 반면,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높게 되어 있다면 일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즉,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은 고용주가 개인의 근로에 대해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를 의미하는 시장임금과 이 사람이 노동에 대하여 요구하는 유보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청년 니트가 되는 이유는 유보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크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보임금이 큰 이유는 비근로소득의 크기와 자신의 여가에 대한 선호 체계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OECD(2019)에 의하면,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15~29세(혹은 15~19세, 15~24세)로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되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로 정의된다(노현주·김현태, 2019). 그러나 니트는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며,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어이다. 영국에서 니트는 사회적 배제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가 제시했으며, 의무교육을 종료한 후 진학 또는 취업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은 16~18세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일본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15~34세이며, 가사 및 통학하지 않는 자로 정의한다(이금진·박재철, 2017).

한국에서 니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 가중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 일반적으로 취업의사가 없는 15~29세 사이의 청년 집단을 가리킨다. 고용 정책 차원에서는 전통적 취업 취약계층과 구분되는 새로운 취업취약계층 집단으로써 다루고 있다. 국내 학자들 간의 니트 정의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니트의 정의를 연령, 결혼 여부, 경제활동

여부, 가사와 육아와 같은 비경제활동 여부, 교육과 훈련의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정연순, 2014; 김종욱, 2017; 박미희 외, 2018).

한편, 최근 들어 1인 가구의 비율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1인가구의 비율이 40%를 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그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국가와 도시들도 있다(황광훈, 2022). 국내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율이 1985년 6.9%에서 2018년 29.8%에서 2045년에는 36.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의 1인 가구는 총 599만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29.8%비율을 차지하여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김선주, 2020).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의 안정성이 불안정하며, 사회적 특성은 가족관계와 결혼문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고령 1인 가구의 고독사와 같은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박미선·이재춘, 2018). 1인 가구가 구성되는 요인도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여러 가지이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구직 및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해버리고 혼자 살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황광훈, 2023).

그렇다면 청년의 비경제활동인구화, 달리 표현하면 청년 니트(NEET)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부진한 주된 요인은 높은 대학진학률이 거론되어 왔다. 즉, 높은 대학진학률과 고학력자 공급 증가, 구인·구직난의 공존 현상 등으로 인한 양적 미스매치(job mismatch)가 발생하여 적정 일자리 이하 또는 전공과 불일치한 직종에 취업하게 되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학진학률

급증에 따른 고학력 청년 공급과잉을 주된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학진학을 급증으로 인한 고학력 청년 공급과잉에 따른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지속하여 실업상태를 계속 유지할 유인이 별로 없다(남재량·김세움, 2013).

청년은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찾기 어려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계속하여야 할 유인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 구직활동을 할 경우 경력상의 나쁜 신호(signal)로 작용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비노동력화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남재량·김세움, 2013). 즉 낙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것이 나올 수 있으며, 대학진학을뿐만 아니라 휴학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바로 청년 비노동력화의 원인을 고학력화에서 찾는 또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 사실상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경우, 낙인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선택하는 것이 이들 청년들의 합리적인 선택과정일 수 있다.

니트족의 증가는 개인 차원에서는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의 훼손을 초래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 불안과 불만족의 발생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실업이나 니트족의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청년실업자나 니트족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에서 활동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사회 활력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즉 초기성인으로서 소비의 주체라는 주도적인 역할로서 소비능력을 상실하고, 이렇게 된다면, 기업에서도 이윤창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이윤이 없으니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 것이다. 이러한 경기침체현상으로서 근로의욕을 상실한 청년들은 사회적 일탈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 2.2 선행연구 검토

청년 니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많지 않지만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연구가 존재한다. 첫째는 청년 니트의 현황과 그 특성, 그리고 변화 추세를 살펴보는 연구들이다. 둘째는 청년 니트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우선 청년 니트의 현황과 그 특성, 그리고 변화 추세를 살펴보는 연구로서는 남재량(2012)을 들 수 있다. 남재량(2012)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15-34세 청년 니트의 현황과 활동 상태를 분석하였다. 집단별 특성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구직 니트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종욱(2017)은 니트의 현황을 구직과 비구직 니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먼저, 비구직 니트에서는 고졸이하 청년층의 비율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비구직 니트가 니트 상태로 머무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반면 구직 니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고학력화와 장기화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에 따라 고학력 노동공급자들이 꾸준히 시장으로 유입되고, 청년 유휴 노동력이 적체된 것이 비교적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니트에 대한 대책 역시 교육훈련의 기회 부족을 보완하는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역시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종욱, 2017).

두 번째 분야의 연구는 청년 니트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들이다. 남재량(2006)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청년 니트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니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낮으면 오히려 자녀의 니트화 경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비정규직이거나 자

영업(고용주 혹은 가족종사자)인 경우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보다 니트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곤(2009)은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청년층 미취업 결정요인과 전기의 미취업이 다음 기의 미취업에 미치는 경력 의존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취업이나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들은 학력, 연령, 혼인여부와 같은 인적 속성이었고, 직업훈련 경험이나 거주 지역의 경제상황, 성장 단계의 가정환경 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기곤, 2009). 이어서 남재량·김세움(2013)은 청년층 비노동력화 현상을 연구하였는데, 청년기에 니트를 경험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고용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고용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한편, 임금손실을 초래하게 됨을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노현주·김현태(2019)는 취업 의사가 전혀 없는 니트에 초점을 맞추어 학력에 따른 집단간 비교를 통해 주요 특성과 영향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졸 청년 중에서 남성, 저연령, 수도권 거주, 부모와 동거인 경우 고졸 니트일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전문대 졸업 청년 중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아버지 직종이 블루칼라일수록, 부모와 동거 중일수록 니트가 될 확률이 높았다. 결국 청년 니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별 니트 집단의 특성과 영향요인 등에 따라 맞춤형 정책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박주상(2021)의 연구는 대졸 니트의 특성과 결정요인 등을 부산지역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최근의 7년 자료를 병합(결합)하여 니트의 규모와 추이를 본 결과, 부산지역 니트 비율이 전국과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정요인 분석결과에서는 남성(-), 4년제(+), 인문전공(+), 부모소득(-), 성적(-), 어학연수 경험(-), 직업능력개발 경험(-), 희망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의 경우 4년제 대졸학력 출

신일수록 니트가 될 확률이 높았고, 어학연수의 경험이 있을수록 니트로 이행할 확률이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청년에게 있어 주거환경의 특성이 큰 이슈가 되면서 관련 연구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청년 주거 관련 연구를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주거비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현정(2015a)의 연구에서는 5대 광역시나 기타 지역보다 수도권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과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 청년 가구에서는 주거 빈곤의 특성과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황광훈, 2022). 청년 주거 특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로는 이현정(2015b)의 연구를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임차 가구의 주거관을 주택 소유 희망, 주택투자, 임차, 지원필요 등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황광훈, 2022). 분석 결과, 주택투자자와 주택소유를 희망하는 그룹은 가까운 미래에 집을 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 주거실태를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태진 외, 2016)에서는 청년층 빈곤율은 고령층에 비해 낮지만, 빈곤 경험 청년층은 많고, 남성 미혼인 경우 빈곤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태진 외, 2016).

청년층 주거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정리해 보았듯이, 최근에는 청년의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청년 주거 자체에 관한 연구들과 함께 주거와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진미정·정혜은(2010)이 연구한 결과에서는 결혼필요성과 자녀 필요성에 동의할수록, 전통적안남녀성 역할 태도 등에 동의할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선보영(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혼할 의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을 평균적으로 초혼 연령을 넘긴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황광훈, 2023). 분석한 결과,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은 블루

칼라인 경우, 그리고 학력수준은 높을수록 결혼할 의향이 낮아서 연령, 직업, 학력에 따라 미혼인 여성의 결혼 의향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황광훈, 2023).

문선희(2012)의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의 연령, 소득, 고용상태가 결혼할 의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혼 및 부부 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고선강·어성연(2013)은 30대 연령층인 미혼 남녀의 경제적 자원이 향후 결혼 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남성은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결혼할 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부모의 주택 소유와 결혼 의향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황광훈, 2023). 또한 남성에서는 취업상태인 경우 미취업인 경우와 비교해 결혼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임태균(2022)의 연구는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전국 가구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 가구 수는 조사 기간 중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청년층 가구의 가구주는 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30대 초반 기혼한 남성 임금근로자였으며, 10년 간 고학력자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도 향상되었으나 여성 가구주와 미혼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전국 평균 소득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이현정·임태균, 2022).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청년층 친화적인 주택시장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해외연구 사례와 관련하여 몇가지 논문을 정리해보면, Lauster and Fransson(2006)은 스웨덴에서 결혼과 자가소유와의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결혼을 한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자 하는 경향이 동거커플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들에 비하여 이전보다 감소한데 비해, 부가적인 수입의 영향력은 남성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황광훈, 2023). Feijten et al.(2002)는 20세기 후반 네덜란드에서 결혼과 출산 등이 장기거주 주택 마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분석 결과,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가구는 충분한 자산을 확보할 때까지 주택소유를 연기하데 비해, 결혼한 부부나 처음으로 출산한 부부들은 이후에 자가소유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황광훈, 2023). 해외에서는 주택점유형태와 출산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장시간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가구의 주택특성과 자가보유성향 및 자가 마련시기 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중점적으로 분석되었다(황광훈, 2023).

### 3. 자료 및 분석모형

본 연구의 연구주제인 청년층의 주거 및 가구배경이 청년니트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청년패널<sup>1)</sup> 자료(2016~2020년)를 이용한다. 다만, 부모 직업 및 학력 등의 변수와 개인의 가구배경 등의 일부 변수는 2007년 1차 조사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변수들의 수집을 위해 1차~14차 전체자료도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먼저 10-14차(2016~2020년) 5개년도 자료를 합동(pooled)하여 필요한 변수들로 구성한 후, 1-14차 전체자료 중 분석에 필요한 일부 변수(부모 직업 및 학력, 개인 정보 등)들을 가져온 후 앞서 구축한 5개년 합동자료와 개인 ID별로 연결(merge) 19,054개의 최종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및 가구배경이 청년

1)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는 1차(2007년)부터 14차(2020년)까지 조사를 실시한 패널자료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현재까지의 일자리 변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패널자료이면서 10여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 뿐만 아니라 이동, 안착과정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니트 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한다. 회귀분석은 변수간의 종속구조, 즉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분석방법으로 주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가 연속적으로 측정 및 관찰된 경우에 사용한다. 하지만 종속변수가 연속변수가 아닌 질적인 특성을 가질 경우(예: 0과 1)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는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갖는 이변량의 특성을 갖고 있는 모형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sup>2)</sup>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y^* = X\beta + \epsilo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거형태의 특성(자가 여부, 아파트 거주 여부)을 나타내는  $y$ 는 두 개(binary)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로

$$y = \begin{cases} 1, & y^* = X\beta + \epsilon \geq 0 \text{인 경우 (청년니트)} \\ 0, & y^* = X\beta + \epsilon < 0 \text{인 경우 (취업)} \end{cases}$$

미취업자 중 니트상태에 있는 청년층과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상태로 이행한 청년층 대상으로 청년니트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청년니트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경우 '1'의 값을 갖고,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는 '0'의 값을 갖는다. 설명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부모와의 동거여부, 거주지역(권역 기준) 등의 개인의 인적속성과 아버지 직업, 아버지 및 어머니 학력, 주거형태 및 주택종류, 가구소득 등 가구배경 관련 변수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합동하여 구축된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시점의 연도더미(2016~2020년) 변수가 포함된다.

니트 여부를 판정하여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앞서 서술한 선행연구들

의 니트 정의와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청년패널 자료에서 니트 상태의 청년층을 분류하였다.

니트 정의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sup>3)</sup>를 정리해 보면, 남재량(2006)은 지난 1주일간 취업자가 아니면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통학하지 않고,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배우자가 없는 15-34세 개인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니트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구직 니트를 구분하였다. 김재호 외(2007)에서는 취업자, 정규교육기관·입시학원 통학자, 육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을 제외한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기혼자를 포함하였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뿐만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도 니트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채창균 외(2008)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유형 1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을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 유형 2는 유형 1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으로 가사를 주로 하는 사람을 포함시켰으며, 유형 3은 유형 2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일간 주된 활동이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기타인 사람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김종욱(2017)은 학생이나 취업자가 아니며, 정규교육기관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가사·육아를 주로 하지 않는 15-29세 미혼청년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니트를 정의하였다.

즉,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에 대해, 구직활동,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쉬었음, 발령대기, 결혼준비 등에 응답한 20-34세 연령층으로 설정하여 청년니트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연령기준이 20-34세인 이유는 2016-2020년 데이터의 표본층을 연도별로 동일한 연령대로 맞추기 위해서 임의로 제한을

2)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로짓모형을 확장하여 합동(pooled) 로짓모형을 사용하는데, 이는 패널자료와 유사하게 2016년~2020년까지의 5개년 자료를 결합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3) 이미숙 외(2022)의 자료 인용

두었다. 또한 가사, 육아,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상태인 응답자는 제외하였다.

## 4. 실증분석

### 4.1 기초통계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첫째, 남성의 비율은 48%로 여성의 비율보다 4%p 낮게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28세이고, 고졸이하 23%, 전문대졸 23%, 대졸 54%로 나타났다. 미혼자가 82%, 부모와 동거중인 경우가 70%로 나타났으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12%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상태가 어려운 청년층 비율이 16%, 보통 66%, 좋음 1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도권 거주가 45%, 중부권이 15%, 호남권 11%, 영남권 29%로 나타났다.<sup>4)</sup> 둘째, 아버지 직업에서는 사무 및 전문직이 24%, 서비스직 25%, 건설 및 생산직 36%로 나타났고,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하 61%, 전문대졸 7%, 대졸이상 32% 였고, 어머니 학력에서는 고졸이하 79%, 전문대졸 5%, 대졸이상 1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거형태 및 주택종류에서는 자가·단독주택 비율이 10%, 자가·아파트 40%, 자가·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 10%, 전월세 등·단독주택 5%, 전월세 등·아파트 17%, 전월세 등·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 18%로 구성되었다.

### 4.2 실증분석 결과

Table 2는 니트인 청년층과 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니트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가·단독주택, 자가·아파트, 전월세 등·단독주택, 전월세 등·아파트 거주 청년층에서 기준집단(전월세 등·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 보

다 청년니트가 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 배경에서는 자가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청년니트 이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배경 변수들을 보면, 아버지 직업에서는 기준 집단(사무 및 전문직)과 비교하여 건설 및 생산직에서 니트가 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어머니 학력에서는 전문대졸이상 학력일 경우 부모님이 고졸이하 저학력인 경우보다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니트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의 고학력일 경우 청년니트가 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4년제 대졸이상 학력층의 경우 고졸이하 학력층보다는 니트가 될 확률은 낮지만, 전문대졸 학력층보다는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일수록 니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도권, 영남권에서 모두 호남권 거주 청년층보다는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연도별로는 최근들어 청년니트가 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Table 3에서는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분류하여 청년층의 니트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남성집단에서는 자가·단독주택, 자가·아파트, 전월세 등·단독주택, 전월세 등·아파트 등에서 기준집단(전월세 등·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 보다 청년니트로 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아버지 직업에서는 기준집단(사무 및 전문직)과 비교하여 아버지 직업이 서비스직과 건설 및 생산직일 경우 니트가 될 확률이 낮은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 학력에서는 남녀 모두 대졸 이상 고학력일 경우 고졸 이하 저학

4)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중부권은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권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이다(이하 표에서는 생략).



**Table 1.** Basic Statistics (N=19,054)

	Variable	Average	Standard Deviation
	Male	0.48	0.50
	Age	28.05	3.66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0.23	0.42
	College Graduate	0.23	0.42
	College Graduate or Higher	0.54	0.50
	Single	0.82	0.38
	Living with One's Parents	0.70	0.46
	Received Financial Support	0.12	0.32
Current Economic Condition	Difficulty	0.16	0.36
	Normal	0.66	0.47
	Not Difficult	0.18	0.39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Area	0.45	0.50
	Central Area	0.15	0.35
	The Honam Region	0.11	0.31
	The Yeongnam Region	0.29	0.46
Father's Occupation	Clerical and Professional Occupations	0.24	0.43
	A Service Jobs	0.25	0.43
	Construction and Production Jobs	0.36	0.48
	Unemployed and not Present	0.15	0.36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Less than High School	0.61	0.49
	College Graduate	0.07	0.26
	College Graduate or Higher	0.32	0.47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Less than High School	0.79	0.41
	College Graduate	0.05	0.22
	College Graduate or Higher	0.16	0.37
Year	2016	0.20	0.40
	2017	0.20	0.40
	2018	0.19	0.39
	2019	0.20	0.40
	2020	0.21	0.41
Resident Type-Housing Type	Own House-House	0.10	0.30
	Own House-Apartment	0.40	0.49
	Own House-Multi-Family House, Villa, Officetels, Etc	0.10	0.30
	Jeonse, Monthly Rent, Etc-House	0.05	0.21
	Jeonse, Monthly Rent, Etc-Apartment	0.17	0.38
	Jeonse, Monthly Rent, Etc-Multi-Family House, Villa, Officetels, Etc	0.18	0.38
Total Household Earned Income (KRW 10,000) (Log Value)		8.57	0.55

Sourc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Youth Panel (YP2007) (in Korean)

**Table 2.** Estimation of Determinants of Youth NEET (Pooled Logit Analysis): All

		Estimate	Standard Error
	Constant	16.906***	1.374
	Male (Standard: Female)	0.175***	0.053
	Age	-0.896***	0.099
	Age Squared	0.014***	0.002
Education (Standard: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College Graduate	-0.618***	0.077
	College Graduate Or Higher	-0.398***	0.070
	Single (Standard:Married)	-0.288**	0.136
	Living With One's Parents (Standard: None)	1.865***	0.106
	Received Financial Support (Standard: None)	3.851***	0.084
Current Economic Condition (Standard: Difficulty)	Normal	-0.918***	0.065
	Not Difficult	-1.737***	0.100
Residential Area (Standard: The Honam Region)	Metropolitan Area	-0.247***	0.085
	Central Area	0.067	0.100
	The Yeongnam Region	-0.226**	0.090
Year (Standard: 2016)	2017	0.112	0.084
	2018	0.143*	0.084
	2019	0.237***	0.083
	2020	0.249***	0.082
Father's Occupation (Standard: Clerical and Professional Occupations)	A Service Jobs	-0.088	0.077
	Construction and Production Jobs	-0.132*	0.075
	Unemployed and Not Present	-0.469***	0.097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Standard: Less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0.046	0.108
	College Graduate or Higher	0.044	0.073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Standard: Less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0.218*	0.117
	College Graduate or Higher	0.172**	0.084
Resident Type-Housing Type (Standard: Jeonse, Monthly Rent, Etc-Multi-Family House, Villa, Officetels, Etc)	Own House-House	-0.207**	0.104
	Own House-Apartment	-0.207***	0.071
	Own House-Multi-Family House, Villa, Officetels, Etc	-0.123	0.098
	Jeonse, Monthly Rent, Etc-House	-0.258*	0.136
	Jeonse, Monthly Rent, Etc-Apartment	-0.162*	0.085
	Total Household Earned Income (KRW 10,000) (Log Value)	-0.569***	0.048
	-2 LogL		19,262.36
	LR-chi2/Wald-test		8,776.42***
	N		19,054

Note: \*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0%, \*\* at 5%, and \*\*\* at 1%.

**Table 3.** Estimation of Determinants of Youth NEET (Pooled Logit Analysis): Gender

		Male		Female	
		Estimate	Standard error	Estimate	Standard error
Constant		20.960***	2.033	12.623***	2.009
Age		-1.176***	0.148	-0.589***	0.145
Age Squared		0.018***	0.003	0.009***	0.003
Education (Standard: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College Graduate	-0.662***	0.117	-0.483***	0.108
	College Graduate or Higher	-0.195*	0.102	-0.452***	0.102
Single (Standard: Married)		0.497*	0.259	-0.587***	0.168
Living With One's Parents (Standard: None)		2.105***	0.165	1.718***	0.141
Received Financial Support (Standard: None)		4.022***	0.131	3.767***	0.112
Current Economic Condition (Standard: Difficulty)	Normal	-0.939***	0.097	-0.977***	0.088
	Not Difficult	-1.866***	0.153	-1.710***	0.134
Residential Area (Standard: The Honam Region)	Metropolitan Area	-0.089	0.128	-0.334***	0.116
	Central Area	0.021	0.151	0.158	0.135
	The Yeongnam Region	-0.239*	0.135	-0.225*	0.123
Year (Standard: 2016)	2017	0.077	0.126	0.126	0.114
	2018	0.115	0.127	0.141	0.114
	2019	0.242*	0.125	0.129	0.115
	2020	0.265**	0.123	0.140	0.113
Father's Occupation (Standard: Clerical and Professional Occupations)	A Service Jobs	-0.213*	0.117	0.012	0.105
	Construction and Production Jobs	-0.228**	0.113	-0.037	0.102
	Unemployed and Not Present	-0.653***	0.148	-0.332**	0.130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Standard: Less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0.054	0.161	-0.070	0.149
	College Graduate or Higher	-0.041	0.110	0.081	0.099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Standard: Less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0.219	0.179	0.217	0.160
	College Graduate or Higher	0.163	0.125	0.204*	0.115
Resident Type-Housing Type (Standard: Jeonse, Monthly Rent, Etc-Multi-Family House, Villa, Officetels, Etc)	Own House-House	-0.429***	0.159	-0.036	0.141
	Own House-Apartment	-0.299***	0.107	-0.136	0.099
	Own House-Multi-Family House, Villa, Officetels, Etc	-0.178	0.150	-0.067	0.132
	Jeonse, Monthly Rent, Etc-House, Villa, Officetels, Etc)	-0.510**	0.213	-0.081	0.179
	Jeonse, Monthly Rent, Etc-Apartment	-0.228*	0.125	-0.128	0.119
Total Household Earned Income (KRW 10,000) (Log Value)		-0.564***	0.074	-0.620***	0.064
-2 LogL		9,902.05		9,294.82	
LR-chi2/Wald-test		5,256.24***		3,661.46***	
N		9,221		9,833	

Note: \*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0%, \*\* at 5%, and \*\*\* at 1%.

력인 경우보다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집단에서는 주거배경(형태)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어머니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이하 저학력인 경우보다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집단별 추정결과에서 공통적인 결과를 정리해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의 고학력일 경우 청년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부모와 동거할 경우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층의 니트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니트로의 이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남녀 모두 수도권, 영남권 거주 청년층이 호남권 거주 청년층보다는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았다.

## 5.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주거특성(주거형태 및 주택종류)과 부모의 직업 및 학력, 경제적 상태, 부모로부터의 독립여부 등 다양한 가구배경 변인들까지 포함시켜 과연 청년니트 상태로 들어서게 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청년니트의 원인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치유하고, 개선 및 해결해 나가야 할지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적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니트(구직니트+비구직니트) 청년층과 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니트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주거배경에서는 자가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청년니트 이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거환경이 전월세,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은 자가 및 아파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층일수록 청년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가구배경에서

는 아버지 직업의 경우, 기준집단(사무 및 전문직)과 비교하여 건설 및 생산직에서 니트가 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어머니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일 경우 부모님이 고졸이하 저학력인 경우보다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속성에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니트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의 고학력일 경우 청년니트가 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일수록 니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도권, 영남권에서 모두 호남권 거주 청년층보다는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연도별로는 최근들어 청년니트로 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분류하여 청년층의 니트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에선 남성집단에서는 자가-단독주택, 자가-아파트, 전월세 등-단독주택, 전월세 등-아파트 등에서 기준집단(전월세 등-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 보다 청년니트가 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아버지 직업에서는 기준집단(사무 및 전문직)과 비교하여 아버지 직업이 서비스직과 건설 및 생산직일 경우 니트가 될 확률이 낮은 나타났으며, 아버지 학력에서는 남녀 모두 대졸 이상 고학력일 경우 고졸 이하 저학력인 경우보다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집단에서는 주거배경(형태)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어머니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이하 저학력인 경우보다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 니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거 및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며, 단순한 주거 및 일자리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니

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성인이 되었지만,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층이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일수록 니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청년층의 니트 이행을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취업 지원 이전에 청년 니트에게 대한 다양한 차원의 주거관련 복지 제공이 필요하다. 청년의 니트화가 독립적 생활 기반이 부재한 상태에서 비롯되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주거 환경 제공 등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여 청년층 독립과 자립을 도와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거 지원과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각 집단별로 차별화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고졸 이하 니트의 경우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음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단일 지원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합한 자립 플랜이 제공되어야 한다. 전문대 졸업 니트의 경우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받기에 자신감 회복과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상담과 적응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청년층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들이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취약한 고용 및 주거환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경제구조,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정상적 사회 진입을 어렵게 하고, 경제적 자립을 저해시키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것이다. 연구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동거하고 있거나,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 높은 경우 청년 니트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우리사회의 학력 증시 문화와 높은 주거비에 원인이 있어 보인다. 향후 학벌보다는 역량

에 기초한 공정한 채용과 인재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과도한 지역 간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은 과도한 대학 입시 경쟁을 낮추고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고 청년 니트를 예방하는 데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므로 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율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이 일부 존재하는 등 분석의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주관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인들(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등)은 청년니트 이행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변수들이지만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청년층 전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청년층 내에서의 집단별 특징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다양한 집단별로 세분화시켜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노력하겠다.

## 참고문헌

1. 고선강·어성연(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
2. 금재호·전용일·조준모(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세종: 노동부.
3. 김선주(2020), “1인가구의 연령대별 특성과 주거만족도”, 『주택도시연구』, 10(1): 39~62.
4. 김종욱(2017), “최근 청년층 니트 (NEET)의 특징과 변화”, 『월간 노동리뷰』, 145: 97~110.
5. 김혜영·선보영(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25.
6. 남기곤(2009),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 미취업 결정요인 및 낙인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5(2): 99~123.
7. 남재량(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

- 회 논문집」, 140~157.
8. 남재량(2012), “고졸 NEET와 대졸 NEET”, 「노동리뷰」, 85: 39~54.
  9. 남재량·김세움(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10. 노현주·김현태(2019), “한국 청년 니트(NEET)의 특성과 영향 요인 학력 수준별 비교 분석”, 「공공사회연구」, 9(4): 73~105.
  11. 문선희(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 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5~25.
  12. 박미선·이재춘(2018),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 방안”, 「국토정책브리프」, 세종: 국토연구원.
  13. 박미희·이봉주·노혜진·박호준(2018),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 성과 분석: ‘희망플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3): 331~366.
  14. 박주상(2021), “부산지역 대졸 니트(NEET)의 특성 및 결정요인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22(1): 607~636.
  15. 변수정·조성호·이지혜(2018),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이금진·박재철(2017), “장애청년 니트(NEET)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8(1): 132~151.
  17. 이미숙·진형익·이예리(2022),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청년 니트 현황과 경제적 비용 산정 연구”, 「산업경제연구」, 35(4): 671~693.
  18. 이태진·김태완·정의철·최은영·임덕영·윤여선·최준영·우선희(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이현정(2015a),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청년 임차가구의 지역별 주거 실태 비교”,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81~90.
  20. 이현정(2015b), “수도권 사회진출초기 임차자의 주거비 실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71~79.
  21. 이현정·임태균(2022),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변화에 관한 중단 분석”, 「LHI Journal」, 13(2): 31~47.
  22. 정연순(2014),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본청년 니트 유형과 특성”, 「고용이슈」, 3: 5~32.
  23. 신미정·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24. 채창균·오호영·정재호·남기곤·김기현(2008), 「유휴청년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5. 황광훈(2021), “청년층의 유보임금 결정요인 및 시장임금과의 격차 분석”, 「노동복지연구」, 2(2): 57~82.
  26. 황광훈(2022),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층의 주거특성 및 주거특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LHI Journal」, 13(3): 21~38.
  27. 황광훈(2023), “청년층의 주거 및 취업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LHI Journal」, 14(1): 1~16.
  28.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YP2007) 10-14차(2016-2020년)”, 2022.3.2. 읽음. <https://survey.keis.or.kr/>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Youth Panel (YP2007) 10th-14th (2016-2020)”. Accessed March 2, 2022. <https://survey.keis.or.kr> (in Korean)
  29. Feijten, P., C. H. Mulder, N. Kumar and A. MartinezCruz (2002), “The Timing of Household Events and Housing Events in The Netherlands: A Longitudinal Perspective”, *Housing Studies*, 17(5): 773~792.
  30. Lauster, N. T. and U. Fransson (2006), “Of Marriages and Mortgages: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Homeownership in Sweden”, *Housing Studies*, 21(6): 909-927.
  31.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Paris, France.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특성(주거형태 및 주택종류)과 다양한 가구배경 변인들이 청년니트(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해 보고, 적절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환경이 전월세,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인 청년층은 등 거주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경우 청년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일수록 니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년 니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거 및 일자리 정책 등 종합적인 청년니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성인이 되었지만,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층이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일수록 니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청년층의 니트 이행을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주제어:** 주거, 가구배경, 청년니트, 합동로지분석

---